

역사적 전환점이 된 작품



홍 경 안 역
시시일각

‘공공미술(Public Art)’은 ‘공공의 장소에 놓이는 미술’을 의미한다. 도심 빌딩 앞, 공원, 광장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조각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도시미관 개선과 미술향유를 목적으로 설치되지만, 정작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작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Tilted Arc)는 이러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문제적 작품이다. 공공미술이란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공공간의 본질과 기능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작가의 신념을 드러낸 도전의 결과물이자, 미술사적으론 예술과 시민,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한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1981년 뉴욕 맨해튼의 폴리 연방 플라자(Foley Federal Plaza)에 설치된 이 작품은 거대한 강철판(Corten steel) 하나로 구성되었다. 길이 36.5미터, 높이 3.6미터

에 이르는 규모는 언뜻 거대한 철판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시각적 문법으로 시민과 공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세라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실제로 이 조각은 사람들의 이동 방식, 공간 인식, 심리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했으며, 이와 같은 설정은 플라자의 동선을 재편하며, 시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시민들은 철판을 우회하며 공간과의 긴장감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은 곧 시각적 감상을 넘어 신체적 경험을 통한 예술을 음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의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 특정 장소를 위해 제작된 장소특정적(site-specific) 작품이었던 ‘기울어진 호’는 설치 직후부터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인근 법원 관계자들과 사무직 종사자들은 위압감을 준다고 불편해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통행을 방해하는데다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장소 이동을 요구했다. 심지어 1985년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작품 존치를 둘러싼 청문회까지 열리게 되었다.

세라는 철거 여론을 단호히 거부했다. 예술은 단지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물

이 아니라, 때론 불편함을 통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맞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 ‘기울어진 호’는 기어이 해체되어 창고로 옮겨졌다. 이를 두고 세라는 ‘예술에 대한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여러 강연과 글을 통해 공공미술의 본질과 예술가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기울어진 호’가 인정받게 된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다. 뒤늦게나마 공공미술의 존재 방식과 시민 참여,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담론 유발이라는 미술계의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민들 역시 미술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 ‘경험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임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다.

‘기울어진 호’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지만 당시 길을 가로막는 골칫거리로 인식되던 이 작품이 남긴 의의는 작지 않다. 예술이 지닌 힘, 즉 사고를 자극하고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이라는 메시지를 영원히 남겼고, 예술과 권력 간의 긴장 관계를 비롯해 공공미술이 누구를 위한 예술인지, 작가의 권리와 공공의 권리 중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화두를 생산하는 등, 공공미술의 역사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미술평론가

정권변화에 긴장하는 여의도



김 지 수 섭
신 하 은
(자본시장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의도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되살아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증권 유관기관 수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은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임기 만료까지 약 2년이 남았지만,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더해지며 입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거래소 이사장이 중도 사임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 이사장은 문제인 정부

에서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에서 거래소 수장으로 발탁됐기 때문에 특정 정치세력에 편종된 인사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여야 모두 자본시장 부흥을 주요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거래소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목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윤창현 코스콤 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대표적 친윤 인사다. 정치권 출신이라는 이력과 함께 보는 인사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역시 윤 캠프의 경제 싱크탱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시 싱크탱크를 주도했던 만큼, 이 사장 또한 보는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두 수장 모두 임기는 남아 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도 사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복헌 금융감독원장은 임기가 오는 6월에 종료된다. 이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정권 교체 시 인사 변동 가능성이 큰 주요 대상으로 꼽히지만 대선 시기와 임기 만료 시기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정권 교체가 거론될 때마다 유관기관장 교체와 짝을 정치색 관련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자본시장 정책의 안정성 훼손과 불안정한 실행력은 금융 생태계의 신뢰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자본시장 전반의 추진력 약화로 직결된다.

결국 여의도 금융권은 다시 한번 정권 교체기의 정중동(靜中動) 국면에 놓였다.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는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또 누군가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지에 여의도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4월 23일 (음 3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48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60년생 운이 있으니 주식보다는 청약을. 72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롭지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 84년생 슬럼프 고��도 자기 성장이다.



37년생 사촌과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49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6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73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85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38년생 계몽을 피우지 말고 일해야. 50년생 신세진 사람이 빚 갚으러 온다. 6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74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로 무성하다. 86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3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51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63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75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8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40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 52년생 아직계획은 보류해야. 64년생 경력을 믿고 교만해야 부처님 손바닥처럼 얇은 수준이다. 76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다. 88년생 집 안 청소로 주변 환기를 해보자.



41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53년생 대인관계에서 내가 먼저 공과 사를 구별해야. 65년생 아성 문제로 시달리실. 77년생 하늘이 알아주니 남들도 알아 복을 받는다. 89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42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옮겨갈 수는 없다. 54년생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66년생 산행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78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 다친다. 90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알아 대비하자.



43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데. 55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시켜 따돌리지 않도록. 67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79년생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걱정이 없다. 91년생 잔소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할 것.



44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56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68년생 선버른 이익은 글세. 80년생 자연에서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92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45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57년생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하도록. 69년생 기획실로 발령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81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93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데 항상 있는 일이니.



46년생 머리가 복잡하니 매해 결정은 미루라. 58년생 배우자가 나의 조력자이니 감사.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걸어 다니는 상황. 82년생 복권이 되려면 반드시 복권을 사야 하듯 일을 일단은 시작해야. 94년생 초년에 기술이든 공부를.



47년생 함찬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59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71년생 기술 쪽에 재능으로 영업이득 있다. 83년생 사람이 원앙지계(鴈之契). 95년생 자신이 근면하도록 해야만 없는 부모 탓을 하지 않게 된다.



김상회의四季 인드라망

인간들은 물론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는 그물코처럼 얽혀있다. 혼자 독자생존이라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세상이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화엄경에서도 세상을 덮고 있는 한없이 넓은 그물은 마디마디마다 구슬이 달려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구슬에서 빛이 나와 다른 구슬을 비추어 주며 각각들 전부를 비추어 볼 수 있다고 설하는데 이것이 인드라망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타인인간과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를 나타내고 있다. 끝벌이 난리다. 작년과 재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만도 약 100억 마리의 끝벌이 집단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양봉 농가에 비상이 걸렸었다. 끝벌 개체 수 감소는 양봉 농가에에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끝벌은 단순히 꿀을 만드는 것 외에도 과일과 견과류는 물론 곤작 채소에 수분(受粉)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꽃 저꽃 날아다니며 수분을 못 하게 되어 과일이나 열매가 열리지 않게 되면 농작물 수확 감소는 당연하고 자연 생태계가 깨지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 건너 넓은 대륙인 미국에서 최근 몇 개월간 끝벌 수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양봉 업계가 큰 위기에 빠졌다고 보도됐다. 이번처럼 끝벌이 많이 폐사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단순히 양봉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미국의 방송 매체들이 난리가 났다. 기후 문제로 인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진 것을 짐작하는 분위기다. 작은 벌이라고 무시해서는 큰코다친다. 인간사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인간들의 공업(共業)은 지수화풍 인드라망은 끝벌들을 통해서도 보게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5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6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하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2	8				5
			4	3	5			
		1					2	8
8		5					6	4
2		7				1		
			7	9	6			
7				2	1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9	1	2	8	6	7	4
6	8	4	7	9	8	9	2	1
1	2	7	9	6	4	8	9	5
8	9	1	8	7	9	4	6	2
7	4	9	2	1	6	9	8	5
8	6	2	8	4	9	1	9	7
2	1	6	9	8	7	2	8	9
7	8	6	9	1	8	4	9	5
9	9	8	4	8	2	7	1	6

8	2	1	9	9	4	8	7	6
8	6	9	7	8	2	9	1	4
4	9	7	6	8	1	2	8	9
7	8	9	1	6	9	4	8	2
2	8	6	4	7	1	9	5	9
1	9	4	8	2	9	7	6	8
6	4	8	2	1	8	9	9	7
9	7	8	4	9	8	6	2	1
9	1	2	9	7	6	8	4	8